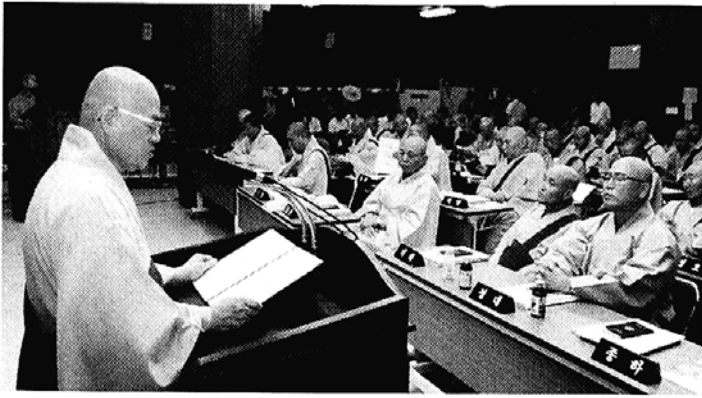


조계종 제142회 임시중앙총회가 17일 5 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총회는 이번 회기 동안 원로회의법 신도법 개정 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정된 27 안건 중 19개 안건을 심의했다.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은 부결됐다.

이번 총회에서도 5일간의 회기 중 16, 17일 이를 동안은 성원미달로 휴회를 거듭 하다 끝내 자동폐회되는 구태를 되풀이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를 동인의 휴회로 계 단법 승려법 승적제법 총림법 등 중법 제·개정안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재원미련을 위한 토지처분 동의요청, 동국 대 불교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특 위 구성 등의 안건은 심의하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기 첫날과 둘째날 집행부에 대한 총책질의 발어 집행부 감사와 대안 제시의 가능성을 보였다.



◇ 13일 개최한 조계종 142회 임시총회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총회도 16·17일 이를 동안이나 성원미달로 휴회를 거듭했다.

지방승가대 정원 재조정 논의

조계종 142회 총회 강릉BBS추진등 총책질의 '진지'

특히 총책질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제도를 처음 시행해 차분한 가운데 총책을 토론했다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서 미리 제출한 질의서를 통해 총책질에 장곡 정병 세영 지원 항적 법보 임행 태공 여연 현웅 성관 장적 화병 지명 지광(금산사) 윤달 지홍 지원 법안 유광 도각 월우스님 등 모두 22명이 질의에 나섰다.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의 등을 통해 총책질에 나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총책질의 가운데 청사신축과 관련된 내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아 종도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총무부장 원택스님 답변을 통해 청사 신축과 관련, "6개월 이상 걸리는 기본·실시설계 기간중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며 "총회의원들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장 일철스님은 성보보존을 위해 불교문화유산보존위원회 설립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성보박물관의 문화관광부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불교방송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제정에 반대하나,

3대 종교에서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교구 호법국장의 조사권 부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도사 문제해결을 위해 호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원 질의에서는 승가대학 총정원 10 인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승스님은 "총정원 30명 이상을 10명으로 낮춘 것은 교육원의 무수신"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오랜 논의를 거쳐 확정된 정원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총회의장 법스님은 "총회 차원에서 승가대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포부장 현진스님은 "군승단을 조계종에서 관할하면 타종단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계종의 관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진스님은 또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은 기자 (swj.ng@buddhopia.com)

정서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런지!

어떤 의미에서든 감청이나 도청은 부도죄(偷盜罪)에 해당된다. 설사, 업무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저촉되는 죄값은 남아 있을 것이다. <범천신책경(梵天神策經)>에는 이를 경계하는 말이 있다.

"삼가 도둑질하지 말 것이니 도둑질 하면 좋은 평판을 들지 못한다. 탐심을 일으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후생에 축생보를 받게 된다."

낮 맑은 새가 들고, 밤 맑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감청이나 도청을 하여 남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의 정보를 몰래 훔치는 도둑질은 반드시 새나 쥐의 파보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첨단기자가 인간의 편리와 편안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더 죄짓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국민의 정서안정을 위하여 하루빨리 감청·도청에 대한 엄중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목어

도청은 부도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스스로 보존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인권이란 개성의 존중이다. 개인이 진정으로 존중될 때, 서로간의 신의가 형성되고 사회의 안정과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의 미명 아래 전화를 감청한다고 하니, 국민이면 누구나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보자. 내가 하고 있는 전화의 내용을 누군가가 도청이나 감청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름 끼칠 일이다. 이

가 듣고 있는 전화의 내용을 누군가가 도청이나 감청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름 끼칠 일이다. 이

자신의 전화가 감청이나 도청 당한다고 생각할 때, 역시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며 기본 나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불법감청이 사회문제화 되자, 경찰청에서는 서둘러 감청 및 통화번호 조회시에는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 총경 이상의 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요청토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는 통신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의 피해의식과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

총회 주요결의사항

원로회의법 '통과'

▲bm특위 해체와 총무원이 bm경영 정상화에 책임지고 나서줄 것을 촉구 결의했다. bm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총부채가 90억원을 상회하나 종단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가 있으면 금융권 부채의 분할 상환 및 미지급금의 연차적 지급 등으로 최소한의 자금(약 10~20억원)으로도 bm의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다"며 "총무원 문화부를 중심으로 향후 bm 경영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담금 조정 특위, 종헌준법 개정특위 활동 시한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종무기금 추경예산안 4억2천6백만원 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사미·사미니 의제 시행 촉구, 종단 대정부 각종 법령 및 현안 촉구, 군당국의 김태복장군에 대한 종교관련 행위 시정 촉구의 건과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진관스님 석방 촉구 결의문은 사회분과위에서 검토 후 발표하기로 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병진스님(총회부의장) 사퇴에 따라 권석이 생진 총림학과관리위원회에 여연스님을 선출했다. 중앙선관위원-범어, 종분, 소성심사위원-해자, 기초선원운영위원 위촉-유여, 인각, 원룡, 종헌준법 개정특위위원-장적, 현봉, 종헌준법 위 위원장 정우스님의 사표는 반려키로 했다.

▲원로회의법, 신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원로회의법 3조1항을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은 승랍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의 원로 비구로 한다'로 개정, 80세 상한선을 삭제했다. 또 부칙 2조 경과조치도 개정, 지난 3월 총회에서 개정된 원로회의법에 따라 자격상실된 원로회의의 원 자격을 회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석주, 윤경, 비룡, 응달, 도현스님이 다시 원로회의의 자격을 회복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

"연기적 세계관으로 새문화 창출"

지난 11일 창립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상임대표를 맡은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통해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연기적 관계로 회복하고, 나아가 시대적 문제를 푸는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이념은 무엇인가.

▲잘못된 세계관에 의한 가치의 식과 방법론에 따른 모순은 불행의 지속시킬 뿐이다. 이제는 연기적 세계관으로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바로 이런 문제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불교위상

생협·귀농교육 전개

인간-자연 관계 회복

도 저절로 높아지게 되리라고 본다. -사업의 성패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세부사업계획을 재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사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개별사찰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창립 전에 18개 본사스님들과 과도 공유체로 생각했다. 다만 연기적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는 유기농 농작물 등의 협조는 이미 구해 놓았다. 각 교구에서 단위사찰로 운동이 전개돼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의 생명공동체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스님들과 불자들의 호응이 없으면 공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진각종 등에 군승개방 긍정검토

조계종 포교원 '군승제도 개혁안' 준비

군승특별교구제·군법사 총원안도 논의

로 고려한다는 내부방향을 정했다.

이와 관련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14일 열린 제142회 임시중앙총회 포교원 총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군승단을 조계종에서 관할하면 타종단에서도 군승후보생(요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타종단의 군법사 진출 문제를 공론화해 내년 상반기 중 포교원안을 마련해 총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고산스님도 16일 진각종 성초 총리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런 뜻을 재확인했다.

포교원은 각 종단의 군승 진출을 반대하더라도 국방부가 승인하면 어쩔 수 없다는 법적 현실과 군법사 총원의 어려움

등을 감안, 진각종으로부터 매년 3억5천 만원 정도의 군포교 지원금을 받고 3~5명 정도의 군승후보생을 진각종에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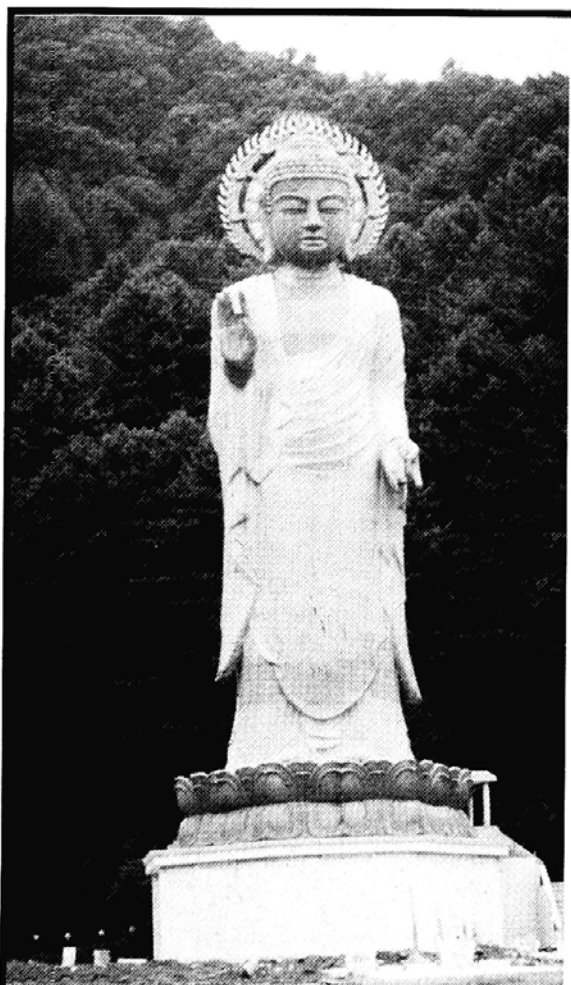
포교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군승 부족난을 해소하고 군승 내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군포교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동국대 불교대학과 중앙승가대에 재학중인 학인들의 군승사관후보생 지원율이 저조해 매년 일반대학에 재학중인 스님들을 군승요원(8명정도)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군승 T.O. 18명 중 5명 가량의 결원이 발생(군승사관후보생은 5명정도)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원인

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2년까지 180명으로 군승 T.O.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획기적인 군승 총원 방안이 없어 모처럼의 군포교 확산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포교원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군승특별교구의 설치 문제는 군법사의 종법적 지위 향상 및 예비역군법사의 활용, 타종교 군승교구에 필적하는 종단 공식 군포교 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군승단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서 포교원도 신중히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군승단 내부의 의견 통합문제, 군법사의 특신 여부를 둘러싼 종지종풍과의 합치성 문제, 특별교구의 종헌준법상의 적법성 문제, 예산 확보 문제, 타종단 군승 진출시의 관리 문제 등 난제가 적지 않아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奉 동양식대 이미타 대불 낙성식 및 점안 봉불식 祝

부처님 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관람합니다. (아미타 대불 높이 36M, 폭 10M 아파트 12층 높이)



학담스님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남과 북, 동해바다 서해바다 가로세로 중앙이 강인도 흥천입니다. 흥천 연연산은 신라말기 도선국사께서 우리나라 명당 약 400군데를 비로국찰로 정하시고 풍수지리학의 원조이시며 흥천땅에 명당 기운이 솟아 이곳에 비로국찰을 세우실려고 하루밤 야숙을 하시는데 연화봉에 서광이 비치고 남여 화신이 내려와 이곳에 오셔서 "산이름을 지어 주시고 티 뒤음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셨습니다.

산에 기운이 너무 세 산에 기운이 누그러질 때 앞으로 약 천년후에 불사에 인연자가 타날 티이니 그때까지 티를 보호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선국사께서 절고 다니는 주장자로 약수물을 들고 절도 없는 곳에 연합, 절골이라 이름 하였습니다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승은 남양주시 도농동에 은선사를 창건 28년간 모아 놓은 부처님 정재와 신도님들의 시주물로 우연히 강원도 흥천 연연산 도선국사 불연지를 만나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시주 동참으로 불사시작한지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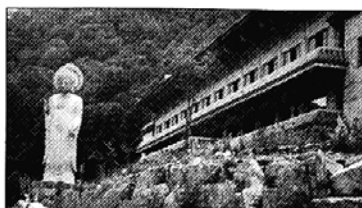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불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극락과 지옥을 해매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3층건물로 연건평 680평, 삼상각 30평, 아미타대불 36m 아파트 12층 높이이며 부처님 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 10대 보은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층에 부처님 12분을 탕화로 모셨고 각 12지 때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미타대불 낙성식 및 점안 봉불식을 전국의 큰스님과 불자형제 사부대중을 모신 자리에서 점안 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불자형제 여러분 이곳 연화사 아미타 대불 몸안에 있는 부모은중경을 전국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요즘 교육제도가 인재를 길러 내는데 치중하다 보니 사람 만드는 예절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자기자신에게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착각하는 듯 합니다.

이곳 아미타 부처님 몸에 잉태하여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부모심대보은은중경을 청소년들을 위하여 부처님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대웅전과 요사채 식당 등등이 완성되지 못하여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법당 전경(불사중)



아미타 대불 및 법당



법당뒤 삼성각



법당앞 약수

- 날짜 : 1999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11시 <삼일간>
- 주소 : 강원도 흥천군 북방면 북방리 664
- 위치 : 흥천에 오셔서 강재구공원 성동마을 지나 연화사
- 전화 : 0366) 433-1815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연화사 주지 김 화 담